

인사말씀

특집을 내면서



인터넷과 이동통신이란 용어가 상당히 많은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때 위성방송의 특집을 내면서 과연 위성방송이란 용어가 우리 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되새겨 보게 됩니다. 온 나라의 관심이 한보청문회·황장엽 망명 등 정치적 상황으로 위성방송 추진과는 무관하게 우리 모두의 시선을 모으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통신사업자 선정이 끝나는가 했는데, 정보통신부는 「GMPCS의 국내 도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위성이동통신서비스(GMPCS)의 가허기는 '97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본 허기는 '98년중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내 사업권은 이리듐, 글로벌스타, ICO 등 시스템별로 1개 사업자에게 주어진다고 하고 있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저마다 중·저궤도 위성이동통신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첨단 기술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운영 여부에 따라 벤처기업들이 탄생하고 이 대열에 서지 못하는 기업은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도 기업처럼 운영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미 일본, 영국 등이 국가의 수상까지도 기업의 사장처럼 자국의 물품을 팔러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비자금과 안보문제로 당장 필요한 정책마저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성방송과 관련한 특집호를 내면서 바쁘신 중에도 원고를 집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정 고마움을 전하며, 아직도 위성 관련 제도마저 해결치 못하고 있는데 벌써 지상과 디지털 TV 시대가 성큼 다가옴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명한 화면, 깨끗한 음질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필요한 화면은 프린트가 되는 이런 TV가 앞으로 2년후인 '99년 하반기에는 국내에 등장하고 2001년부터는 상용서비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될 가전 수상기 시장에 디지털로 대변되는 우리의 위성방송이 이제 표류를 중지하고 정착되어 발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특집위원장 박 건 칠